사월 월간 보고서

소는 인도에서 신성시 되는 동물로서
인도인들은 소를 좋아하고 우리는 소를 좋아한다.

라온아띠 十一기

印度

四 天痴 "네 멀간이"

김누리 김예원 정주영 주다은
아쉬시 쁘리이띠 아난드 배리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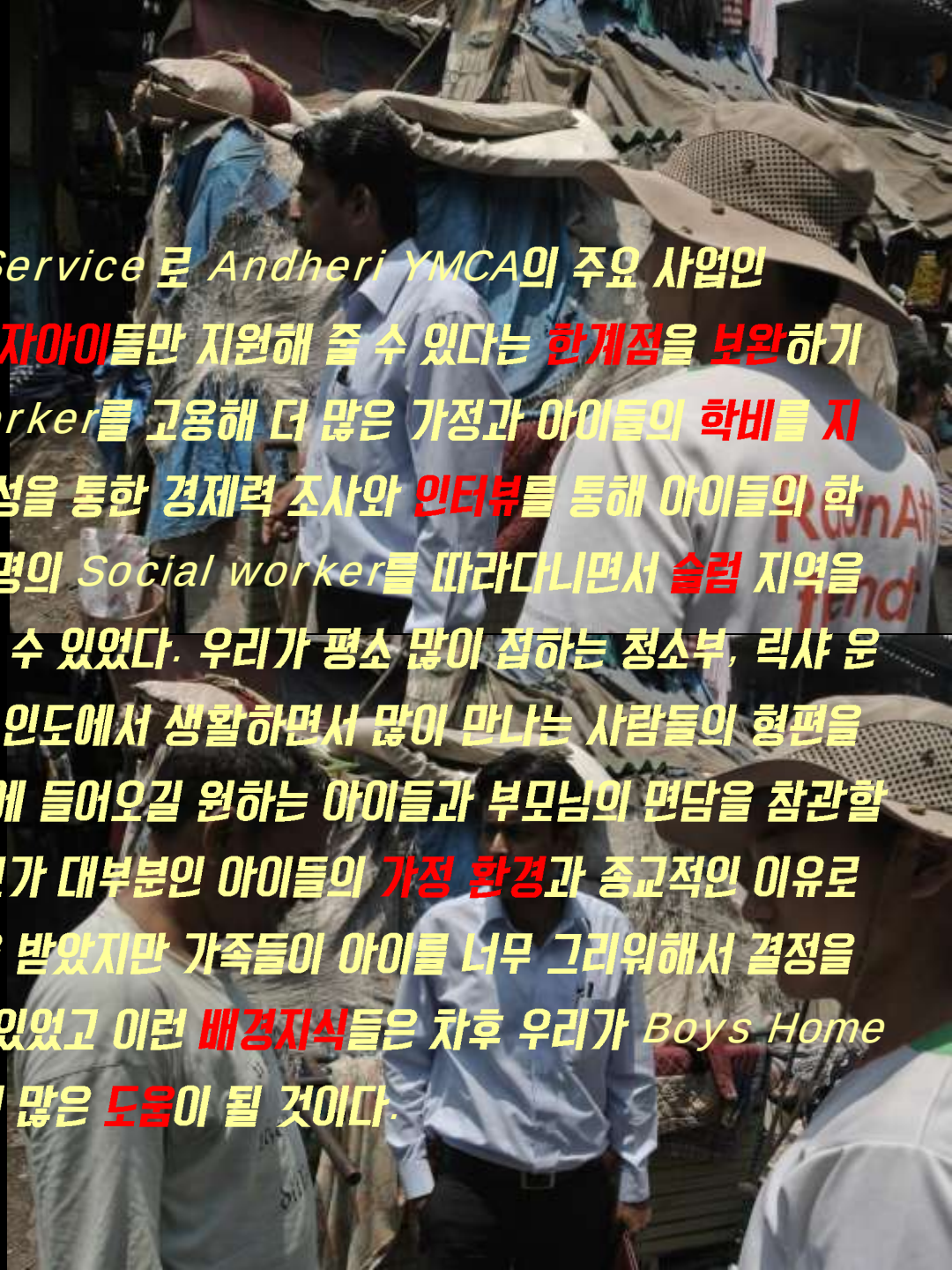
2014/4/6 ~

2014/5/3

Juhu Street children: J
English class: E
CFES: C
Unemployed: U
캠프: P
까마띠뿌라: K
힌디클래스: H

일	4/6	13	20 부활절 행사	27
월	7 H K	14 Tutti Soli	21 J E	28 J E
화	8 H K	15 U	22 U	29 P
수	9 H K	16 E C	23 J E	30 P
목	10 이사	17 U	24 U 뭄바이 투표	5/1 P
금	11 J	18 Toy library	25 E C J	2 P
토	12	19 K	26 U	3 P

CF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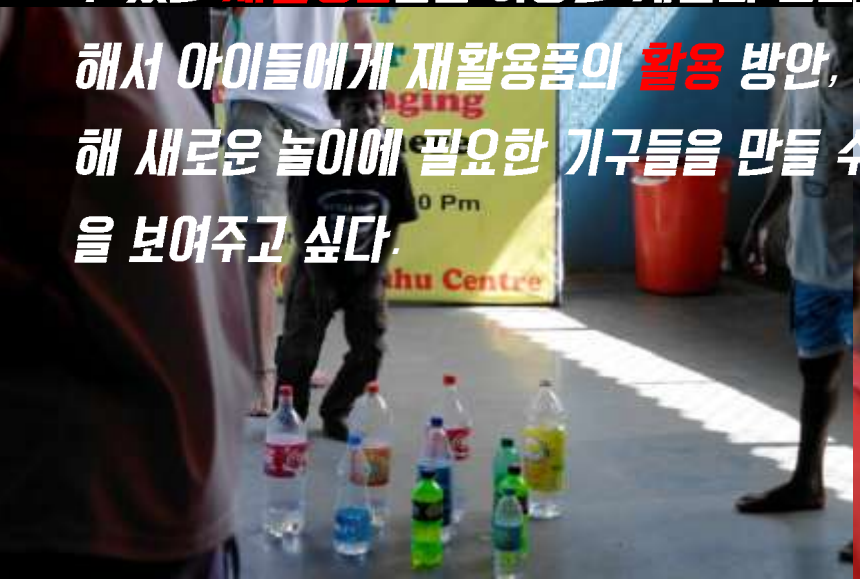
Children Family Extension Service 로 Andheri YMCA의 주요 사업인 Boys Home이 조건이 까다롭고 남자아이들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활동이다. 두 명의 Social worker를 고용해 더 많은 가정과 아이들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가정 방문과 설문지 작성을 통한 경제력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아이들의 학비 지원 정도를 결정한다. 우리는 두 명의 Social worker를 따라다니면서 슬럼 지역을 방문하고 여러 계층의 가정을 관찰할 수 있었다. 우리가 평소 많이 접하는 청소부, 릭샤 운전사 등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우리가 인도에서 생활하면서 많이 만나는 사람들의 형편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Boys Home에 들어오길 원하는 아이들과 부모님의 면담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주로 편부모가 대부분인 아이들의 가정 환경과 종교적인 이유로 가족들에게 지원이 끊긴 경우, 허락을 받았지만 가족들이 아이를 너무 그리워해서 결정을 번복한 경우 등 여러 상황들을 알 수 있었고 이런 배경지식들은 차후 우리가 Boys Home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Juhu Street Children

Juhu YMCA에서는 Street Children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 중이다. 이곳에 머물고 있는 아이들은 15명 정도로 약 9살에서 19살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고 밝은 성격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센터에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들과 우리가 직접 관찰한 결과 아이들이 대부분의 여가 시간을 TV를 보면서 지낸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활발한, 성장기의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게임과 스포츠를 준비해서 **건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결정했다.

Juhu Street Children

센터 바로 앞에는 바닷가가 위치해 있고 센터 뒤쪽으로 작은 마당이 있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는데 좋은 조건이었다. 여러 활동들 중에서 빈 음료수 페트병을 이용한 **볼링게임**을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고 즐길 수 있었다. 또 빈 달걀상자와 탁구공을 이용해 팀으로 게임을 진행 하였는데 이 역시 아이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즐길 수 있었다. 이처럼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재활용품**들을 이용한 게임과 스포츠들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재활용품의 **활용** 방안, 이를 이용해 새로운 놀이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Unemployed Youth

Bandra YMCA 에서 주관하고 있는 Unemployed Youth 프로그램은 Social worker Chandrakant 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일정한 일도 없는 Youth들에게 **직업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일을 주관하고 있다. YMCA 뿐만이 아닌 다른 NGO들의 지원을 받아 운전, 경비, 멘디, 수선, 컴퓨터, 전기, 핸드폰 등 여러 가지 교육 중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Youth 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미래 **직업**을 결정하고 이로 인해 **책임감**을 갖고 수업에 임할 수 있다. Bandra 지역에 위치한 **슬럼**을 돌아다니면서 Youth 들을 만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모집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현재 교육을 받고 있거나, 교육을 모두 마친 Youth 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청년 실업**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인도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청년 실업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인도에서의 청년 실업의 **원인**은 큰 차이를 갖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english class

Andheri YMCA의 Vocational Training Center의 한 가지인 English Class를 보조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영어 교실을 한 차례 참관한 뒤 선생님의 수업 진행이 상당히 원활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을 느꼈고, 수업 중이 아닌 **수업 전, 후**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다. English Class는 Junior, Senior 두 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Junior Class는 아직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았고 아주 **기초**적인 영어를 배우고 있어서 **영어 동화책** 읽기를 통해 배운 내용들을 **복습**하고 간단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english class

Senior Class 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데 꽤 익숙해져 있어서 **스피드 퀴즈** 등 게임으로 정확한 **문장**으로 말하는 연습과 여러 가지표현을 영어로 말하는 연습을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결정하고 실행해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복학생 형이 문제를 풀고 있다.

캠프

4월 29일 부터 5월 3일까지 우리는 첫 번째 캠프에 캠프 리더로 참여하게 되었다. Dare to Care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캠프는 여러 가지 활동들로 아이들에게 용기 있는 행동들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더불어 자신과 자신의 주변 사람들, 환경까지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큰 목표로 진행되었다. 캠프 경험이 많지 않고 아이들과의 의사소통 문제 등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것들이 많았지만 라온아띠를 잘 알고 있는 동료들과 많은 친구들의 도움으로 큰 사고 없이 캠프를 마칠 수 있었다. 배테랑 캠프 진행자들의 진행 방법들과 여러 가지 게임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아이들과 함께 여러 활동들을 즐기면서 추억을 공유할 수 있었다.

기합 받는 것 아님. 실제로는 웃고 있음.

혼자 신나 방방 뛰고 있는 pritie와 그녀의 친구 anand

pari가 물에 빠진 아이들에게 해맑게 웃으며 물을 먹이고 있다.

장난감 도서관

구미 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난감 도서관**을 벤치마킹하여 시작된 이곳의 장난감 도서관. 처음 우리가 장난감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우리 모두가 직감했다. **정리**해야 한다. 장난감이 흘러 내리고 있었다. 장난감이 장난감 다울 수 있도록 우리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였다. 평일에는 장난감 도서관이 운영 예정인 자리에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미술 교실이 운영되고 있어서 평일엔 정리가 힘든 상황이었다.

정리를 돕겠다며 난입한 복서(개 / 남 / 나이미상)

장난감 도서관

우리는 Good Friday 로 휴일인 4월 18일 금요일, 꿀 같은 휴일을 반납하고 정리를 시작하였다. 주로 **보드게임**으로 구성되어 있는 장난감들을 구성품별로 분류하고 알맞은 짝을 찾아 완제품으로 만들어 정리하고, 구성품이 많이 빠져 게임을 할 수 없는 것들과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은 장난감들은 책임자와 논의 후에 과감하게 버리기로 결정하였다. 추후 장난감 도서관의 **장소**와 **운영 방안**, **활성화 방법**들은 계속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하고 실행하려고 한다.

hindi class

4월 9일을 마지막으로 힌디 클래스가 끝이 났다. 마지막 시간에는 간단한 먹을거리와 함께 게임을 진행하면서 파티를 가졌다.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팀원 모두가 힌디를 사용했을 때 현지인들이 더 쉽게 마음을 여는 것에 동의를 했고 각자의 방법으로 힌디어 사용을 해왔다. 하지만 힌디 클래스가 끝나면서 가장 기본적인 소통까지만 가능했던 수준에서 우리의 실력이 멈췄고, 더 많은 대화를 힌디로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hindi class

이슬람 교도인 우리의 힌디 선생님 사바는 앙용(안녕), 나히~(노!), 쮸따~(사기꾼) 등 그녀만의 특유의 억양으로 많은 유행어를 남겼으며 마지막 날 게임 벌칙을 받고 수줍은 모습으로 ANAND(주영)에게 청혼을 했다는 후문.

왼쪽부터 ashish(누리) pritie(예원) anand(주영) pari(다은)의 모습. pritie가 자신의 유행어인 꾸냉('그래'의 귀여운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쓰레기 수거 후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는 anand의 아련한 뒷 모습

까마띠뿌라 외부 환경개선

우리가 인도에 도착한 처음 한 달 동안 지내면서 가장 크고 비중있게 활동한 프로그램이 **까마띠뿌라 데이 케어 센터**이다. 그 중 전 기수들을 비롯해 우리들이 크게 주목했던 부분은 바로 **센터 외부**에 매일 쌓이고 있는 **쓰레기**에 관한 문제인데, 꽤 **넓은 공간**이 쓰레기 때문에 사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었다. 3월 한 달 동안 **주민**들의 집을 **방문**하고 **소통**하면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특히 센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가 하나의 사회, 연대라기 보다는 **각 층마다** 사회와 **연대**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듣고 **관찰**할 수 있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주기적으로 자주 방문하기는 힘들어졌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으면서 동시에 주민들에게 작은 **메세지**들을 전해주고 싶어서 우리는 한 달에 한번씩 아파트를 방문하기로 계획했고, 이번 달에도 한차례 방문을 하였다.

까마띠뿌라 외부환경개선

우리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조금이나마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으면서 동시에 주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쓰레기봉투**를 들고 가정을 방문하면서 그들의 쓰레기를 대신 버려주는 활동을 계획하였다. **호기심**에 우리를 관찰하는 주민들과 왜 이런 활동을 하는지 궁금해 하는 주민들, 우리를 기억하고 크게 **환영**해주는 주민들도 있었고 아직 **거부감**을 갖고 좋지 않은 눈빛을 보내는 주민들도 있었다. 이미 몇 차례 방문으로 친분을 쌓은 아파트 아이들과 함께 다니고 장난도 치는 모습에 많은 주민들이 마음을 열기도 했다. 비록 당장의 큰 효과나 가시적인 현상을 기대하거나 볼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많은 정보들과 주민들의 입장을 듣다 보면 전 기수들의 노력이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듯이 **서서히** 문제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불어 다음 기수에게 더 많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

까마띠뿍라 데이케어센터

지점토로 얼굴을 만드는 활동 이후 지점토 다 마르자 우리는 물감으로 색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아이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각자 만든 얼굴들에 각자의 방식으로 색을 칠하기 시작했다. 물감에 상당히 많은 호기심을 보여주었고 색이 섞이면서 다른 색이 만들어지는 것을 많이 신기해 했다. 색을 섞으면서 아이들은 창의력 대장이 될 수 있었고 칸딘스키와 몬드리안을 능가하는 추상주의 작품을 남길 수 있었다. 사실 이렇게 모형을 만들고 색을 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개입하고 도와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다. 아이들이 많이 어리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고 스스로 하도록 시킨다면 극 추상적인 작품이 나왔고, 도와준다면 작품은 예쁘고 깔끔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아이들의 주체성과 창의성을 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답을 찾진 못했지만 아이들의 창의성과 개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큰 방향을 벗어나지 않는 정도로만 도움을 주기로 하였다.

까마띠뿌라 아이들과 마지막 시간으로 바람개비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간단한 재료들을 이용해 여러가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어린 아이들이 우리의 뜻까지 헤아려 주었을지 궁금하다. 바람개비라는 조금 더 가시적인 매개로 바람의 존재를 더 잘 느낄 수 있었고, 달리면서 바람을 느끼던 아이들이 선풍기 아래로 모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작고 사소한 것들로 하루 종일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웠고 이제 자주 오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너무 컸던 것 같다.

누가 누가 잘 돌리나? 바람개비야 돌아랏!

돈 있냐?

FIRE
CREW

인도의 선거문화

유권자만 7~8억에 달한다는 인도의 투표가 4월부터 시작되었다. 우리의 투표 문화와 투표 방법은 꽤나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었다. 인구가 많고 땅이 큰 인도에서는 약 5주에 거쳐 순차적으로 투표가 진행된다. 개표는 모든 투표가 끝난 후에 결과가 집계되고, 개표 후 다수당의 수장이 총리가 되는 방식이다. 투표를 위한 신분증이 따로 존재하는 것도 우리와 큰 차이점이다. 투표 후에는 손가락에 **표식**을 남기는데 이 표시는 3개월 동안 지워지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다.) 이러한 표식은 투표 후에 반복 투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투표**를 **독려**하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 우리 나라에도 **도입**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투표 인증 중… 욕 하는거 아님

인도의 선거문화

또한 투표는 **전자식** 투표로 진행되는데 **문맹** 인구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 정당의 상징(연꽃, 자전거, 손 등)과 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투표기간 전 길거리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젊은이들을 볼 수 있었고, 거리 곳곳에도 투표를 독려하는 **광고**가 많이 있었다.

손으로 식사하기

환경오염이 전 지구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밥을 손으로 먹는 인도의 문화는 식기 세척에 사용되는 세제로 인한 오염을 최소화 시킬 수 있고, 탈리라고 불리는 쟁반에 담아 먹는 문화 또한 지구를 구원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하여 우리는 손으로 먹기로 결정했다. 또한 우리가 진행할 350PPM 의 취지와도 상당히 연관성이 크기도 해서 결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하여 혹 아직까지 숟가락을 사용하여 밥을 먹고 있는 팀이 있다면, 혹시 손으로 먹는 문화가 그 나라에 없는 나라라면, 한 번쯤 시도해보길 바라며 손으로 식사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손으로 식사하기

1. 손을 닦는다. 건조한 날씨 때문에 먼지도 많고 공해가 심각한 뭄바이의 특성상 밥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는 핑계고 사실 밥 먹기 전엔 손을 당연히 씻어야 한다.)

2. 밥을 받는다. 먹을 수 있을 만큼만 각자의 식성에 맞춰서 밥을 받는다. 낙장불입. 한번 받은 밥은 남기지 않는다.

손으로 식사하기

3. 맛있게 먹는다

고기 없는 월요일

많은 팀들이 고기 없는 월요일을 잘 지키고 있으리라고 믿는다. 하지만 **타의적**으로 고기 없는 많은 요일을 지키고 있는 팀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중 한 팀이 우리 팀이다. 인도 문화권의 많은 국가들이 비슷하겠지만 주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들이 많다. 하여 우리도 본의 아니게 채식주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도 고기 없는 월요일을 잘 지켰다는 풍문이다. 고기 없는 월요일의 **실효성**과 **의미**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이야기가 있었지만 나 때문에 죽는 동물들이 당장 한 마리라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꾸준히 실행**하고 있다.

스포츠 경기 시청

공을 던질 공간만 있으면 크리켓을 하는 나라가 인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만큼 온 국민이 크리켓을 좋아하고 사랑한다. 인도에서 사귄 친구들과 크리켓 국가대표 경기를 같이 시청하면서 많이 친해질 수 있었는데 처음엔 규칙도 모르고 큰 재미를 느끼지 못했는데 규칙을 알아갈수록 더 많은 재미와 볼거리를 찾을 수 있었다.

스포츠 경기 시청

축구를 좋아하는 누리단원의 영향으로 주말 저녁 팀원들과 함께 축구를 시청하는 시간이 많았다. 축구의 규칙과 선수들을 잘 모르던 여자단원들도 조금씩 축구를 알아가면서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pritie 와 pari는 아직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카가와를 김보경으로 알고 있다.가장 기대 받았던 경기인 첼시와 리버풀의 경기는 첼시를 응원하는 ashish단원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인도에서 만난 친구 vinoy와 리버풀 팬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싶다. *You Never Walk Alone.*

aashish 누리

주홍색 가로등불이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는 늦은 밤. 낮의 무겁고 끈적한 바람과는 전혀 다른 기분 좋은 선선한 바람. 울퉁불퉁한 도로를 온 몸으로 느끼며 달리는 오토 릭샤 안에서 생각한다. 일상이 되면 왜 낭만은 사라질까. 만약 내가 여행자였다면, 이곳 인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늦은 밤, 기분 좋은 바람, 희미한 불빛, 조용한 거리 모두 낭만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하고.

낭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낭만은 일상에서는 찾아오지 않는 것일까. 낯선 도시의 낯선 풍경, 낯선 사람들, 낯선 바람과 공기. 이 모든 것들이 낯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에게 기대와 설렘으로 다가오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익숙치 않은 것들의 낯섦은 쉬 낭만으로 다가오게 마련이다.

이 곳, 인도에서의 생활도 점점 일상이 되어간다는 생각을 하며 슬퍼진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다 문득 왜 "일상이 되는 것은 슬프다" 라고 생각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나는 왜 익숙해지는 것을 슬픈 것이라고 생각할까. 익숙함과 낯섦, 일상과 일탈의 무언가는 양극단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서로 반대될 수 밖에 없는 것일까. 낯선 익숙함, 익숙한 낯섦. 어쩌면 둘은 양극단이면서도 서로 맞닿아 있어서 뒤만 돌아본다면 바로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만약 무엇인가에 익숙해져서 일상이 되는 것이 슬픈 일이라면 우리 인생은 자연스럽게 슬플 수 밖에 없는 것인가. 적응하고 정착하는, 사회에 소속되어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의 본능으로 인해 우리 인생은 슬퍼질 수 밖에 없는 슬픈 운명을 타고 난 것일까.

aashish 누리

익숙해지지 말자. 매일 같은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매일 다른 하루를 살고 싶다. 매일 매일의 일들에 익숙해지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타성에 젖어 살아지는 하루 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면 난 정말 슬플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낯섦이 익숙함으로 다가오는 시점, 익숙해 진다는 것, 일상이 되어가는 것을 나는 경계하고 슬퍼하는 것 같다. 한 때는 내게 낯설었고 익숙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상이 되고 매일 같은 하루를 살게 되는 것은, 내 주변을 돌아보면 아직도 낯선 무언가들로 가득 차 있겠지만 일상에서 벗어난 무언가 익숙하지 않음을 찾고자 하는 나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까.

누군가는 인생을 흘러가는 데로 살아간다고 한다. 흘러가는 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표현보다는 살아진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살아지는 인생이 나의 주관, 의지, 뜻이 사라지는 인생이라면, 살아지는 것과 사라지는 것, 살아지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고 사라지기 때문에 살아지는 것이라면, 단어 자체의 유사함 이상으로 둘은 닮아 있는 것은 아닐까.

익숙함이 지배하고 있는 삶 보다는 낯섦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를 살고 싶다. 어느덧 이곳에서 느꼈던 낯섦이 일상으로 느껴지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나에게는 낭만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누구게~♥

ANGRY BIRDS

REFERENCE
COMPLETE SPANISH
Oxfor
COMPLETE HINDI
COMPLETE FRENCH
German

anand 주영

내가 가장 싫어하는 계절은 여름이다. 때문에 항상 여름에는 가능한 한 차가운 물을 먹고 에어컨 시설이 잘 되어있는 시원한 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땀이라도 나면은 찝찝해서 견디기 힘들어 한다.

이 곳에서 역시 더위는 정말 참기 힘든 것중 하나이다. 한 낮의 열기가 온 몸을 감싸면, 가끔은 현기증이 나기도 한다. 에어컨은 커녕 시원한 물 또는 초강력 대형 선풍기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이 곳에는 한 낮에 부드러운 바람이 전해주는 조용한 시원함이 있다. 한 낮의 열기를 식혀주는 밤하늘의 선선한 공기가 있다. 그럴때면 찾아오는 감사함이 있다.

여름은 엄청난 에너지를 얻는 때이기도 하다. 내리쬐는 태양은 하루에도 수많은 에너지를 보내고 있고, 식물은 그 에너지를 받아 과일을 맺는다. 여름의 뜨거운 땅은 수많은 곤충을 품어주고 여러 동물들에게 에너지를 준다.

어쩌면 그 다양성이라는 에너지에 현기증을 느낀 것일지도 모른다. 한국에서보다 다양한 언어, 인종, 생활방식이 공존하는 이 곳의 에너지를 얻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이 곳에서 수많은 동, 식물, 사람들과 함께 여름을 나는 법을 배우고 있다.

VALUE TO LIFE

BUSINESS & MANAGEMENT
STEPHEN R. COVEY
7 HIGHLY EFFECTIVE PEOPLE
FASTER

pari 다은

4월에 이사를 해서 그런지 시간이 무척 빨리 지나갔다. 벌써 2달이라니.. 3월에 I.H에 있었을 땐 뭔가 답답했는데, 여기 Andheri는 우리 집 바로 앞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많아 뭔가 자유롭게 느껴졌다. 예전에 초반에 juhu를 방문했을 때 , 전 기수의 사진을 간직하면서 자랑스럽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이들을 보고 우리도 그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4월 이사 후 이곳 andheri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juhu 아이들과도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뻤다. 비록 내가 그 아이들에게 뭘 해줄 수 있고, 라온아띠로써 어떤 활동을 함께 하며 시간을 보낼지는 잘 모르겠지만, 역시나 분명한건 아이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며 제일 만만한 나에게 유난히 장난을 많이 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짜증도 나고, 눈물도 났지만 그 친구들이 그만큼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좋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도를 지나치게 아이들이 장난을 치면, 그 순간 어떻게 아이들한테 대해야 할 지 아직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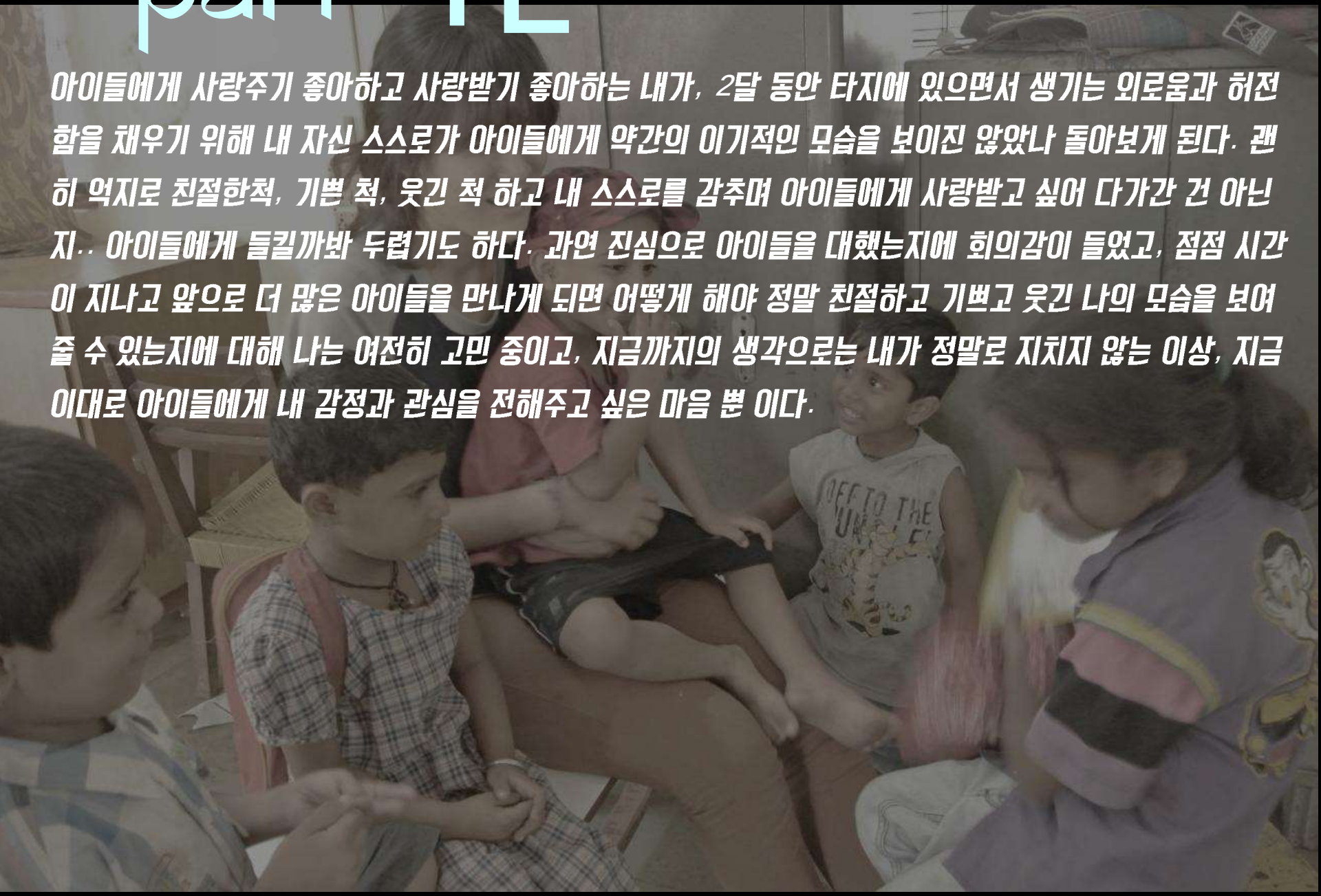
매일가던 Kamathipura를 몇주만에 가는 날, 하루종일 너무 떨렸다. 왜냐하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까르띡라는 친구가 있는데 인사도 제대로 못한 채 일주일을 넘게 못보고 이사를 와버렸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가는 날 까르띡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Kamathipura 문을 여는 순간 아이들이 우루루 달려와 안아줄 때 너무 기뻤고, 내가 까르띡을 향해 앉으면서 두 팔을 여는 순간 까르띡가 달려오면서 내 품으로 안겼을 때, 감정이 북받쳐 울고싶었지만 팀원들과 아이들에게 창피해서.. 울 수 없었다. 하하. 그 날 계속 유

pari 다은

난히 까르띡는 나에게 잘 왔고, 너무나 고마웠다. 내가 그리워한만큼 뭔지 모를 보상을 받은 느낌이었다. 까르띡이 나에게 안긴 순간 까르띡을 안본 날부터 쌓인 피로가 우루루 무너져 내린 느낌이랄까. 물론 다른 아이들도 많이 사랑하지만 유난히 까르띡을 짝사랑하는듯.. 키키. 원래 한달에 1번에서 많으면 2번 방문하기로 했는데 항상 매일 보다가 한달에 한번씩 볼라니까 못본지 엄청 오래된 느낌이 드는지.. 5월 한 달은 3개의 캠프와 Day camp 그리고 중간평가로 아이들을 만나러 한 번만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아쉽다. 물론 아이들은 우리를 그새 잊을 수도 있겠지만.. 괜찮다 내가 기억하면 되니까 :)

캠프동안 "역시 애들은 그냥 애들일 뿐이구나" 라는 나의 생각을 창피하게 만들어준 친구가 있었다. 캠프 마지막 날 아침, camp lakeside 주변에 한 작은 마을을 방문하는 시간이 있었다. 대도시인 뭄바이에서 살던 친구들이 시골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한 집의 현관문이 나무로 만든 핸드메이드 문이 있었다. 우리팀에 유독 말을 듣지 않는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나한테 와서는 "여기 사는 사람들이 비록 영어는 못하지만, 우리보다 손재주가 뛰어나고 배울 점이 많다" 고 얘기한 순간 국내훈련 때 무언가로 맞은 듯한 느낌이 똑같이 느껴졌다. 4박 5일 동안 한없이 철없고 (물론 나도 철없지만) 원숭이, 귀신 때문에 울고불고 나를 힘들게 한 친구가 그런 말을 하다니.. 지금 2달동안 생활하면서 내 자신도 제대로 간수 못 하고 있는데 고작 생각하는게 아이들에 대한 한심한 평가라니...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다.

pari 다은



아이들에게 사랑주기 좋아하고 사랑받기 좋아하는 내가, 2달 동안 타지에 있으면서 생기는 외로움과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내 자신 스스로가 아이들에게 약간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진 않았나 돌아보게 된다. 괜히 억지로 친절한척, 기쁜 척, 웃긴 척 하고 내 스스로를 감추며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싶어 다가간 건 아닌지.. 아이들에게 들킬까봐 두렵기도 하다. 과연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했는지에 회의감이 들었고, 점점 시간이 지나고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정말 친절하고 기쁘고 웃긴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 나는 여전히 고민 중이고, 지금까지의 생각으로는 내가 정말로 지치지 않는 이상, 지금 이대로 아이들에게 내 감정과 관심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 뿐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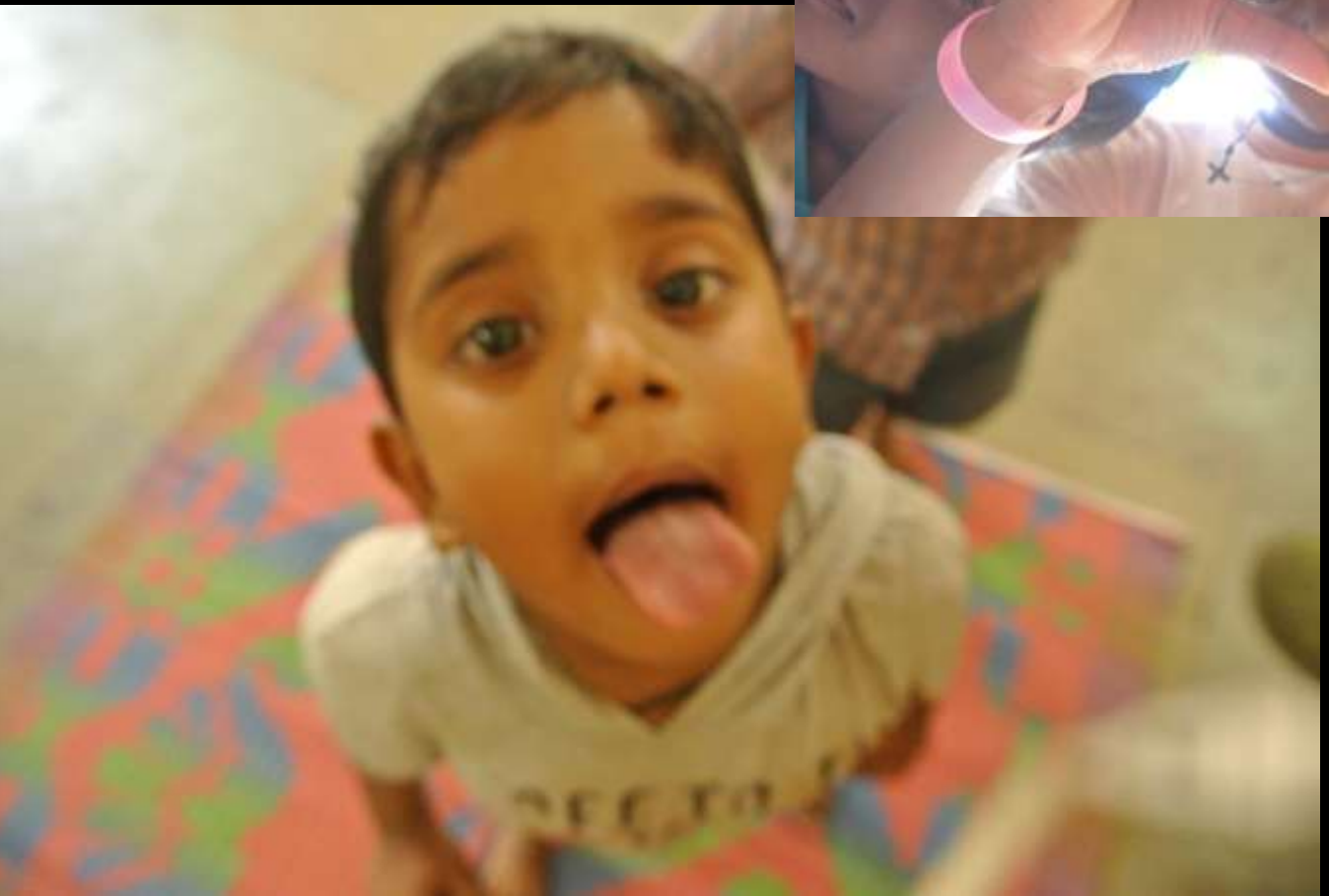
예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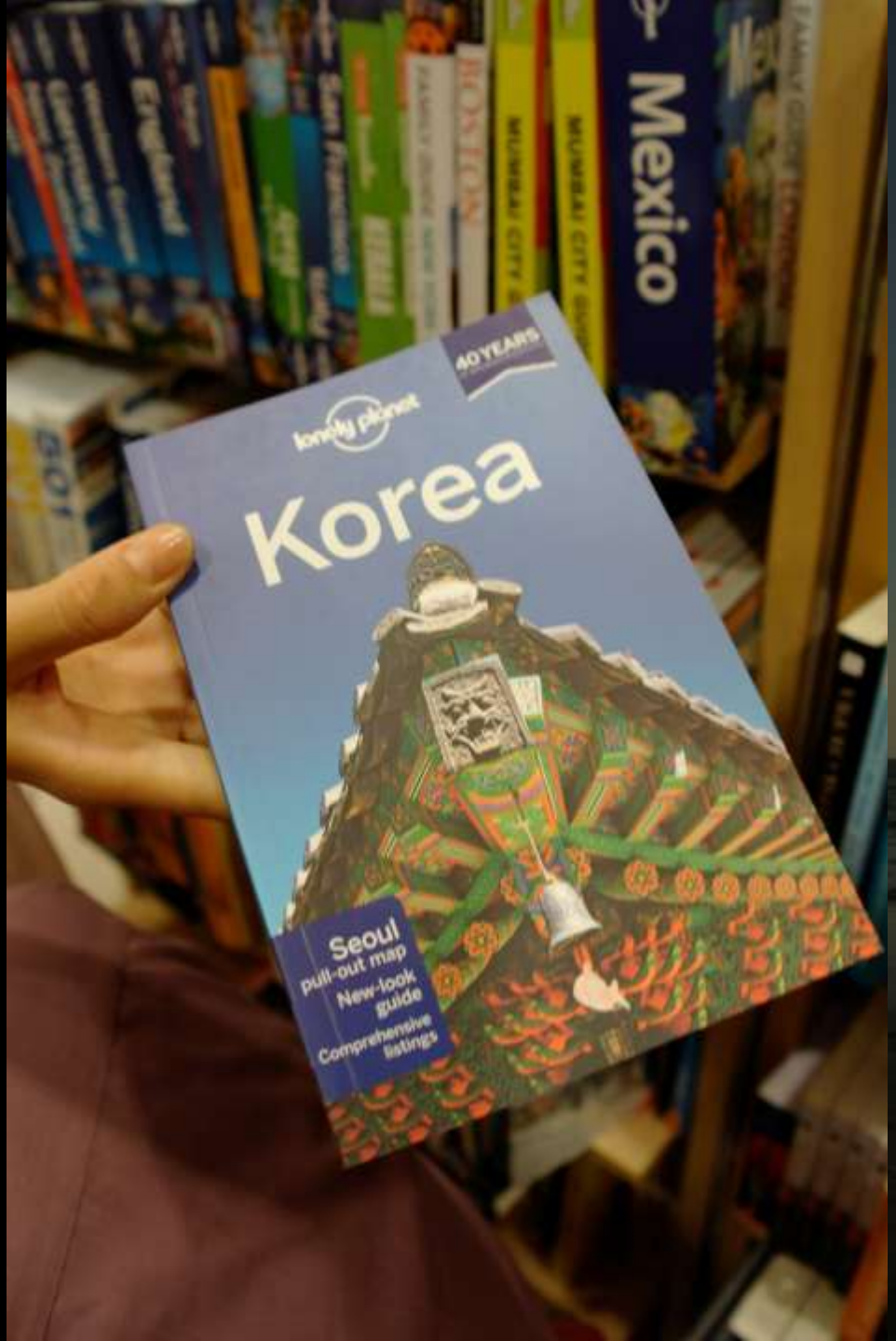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때로는 사서 고생하는 것과 같고, 혹은 공연한 일을 하는 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게도 한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크게 확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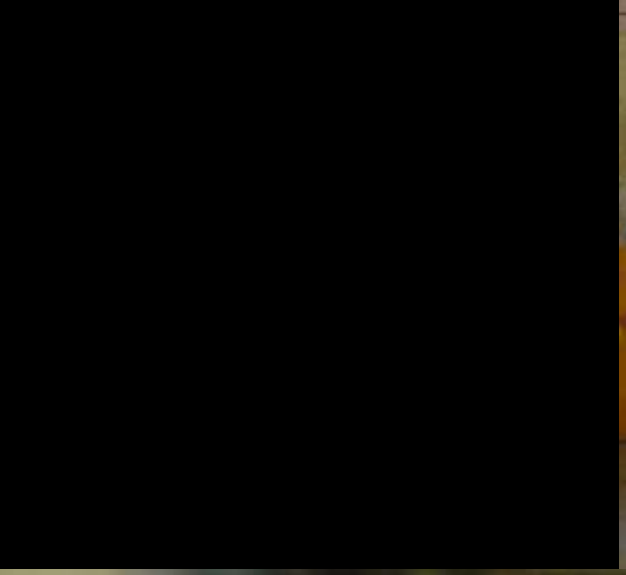
작은 일이라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 또한 자신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충분히 행복해질수 있는 가치가 있다.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삶 속엔 따뜻한 희망과 열정이 있다. 그래서 자신은 더욱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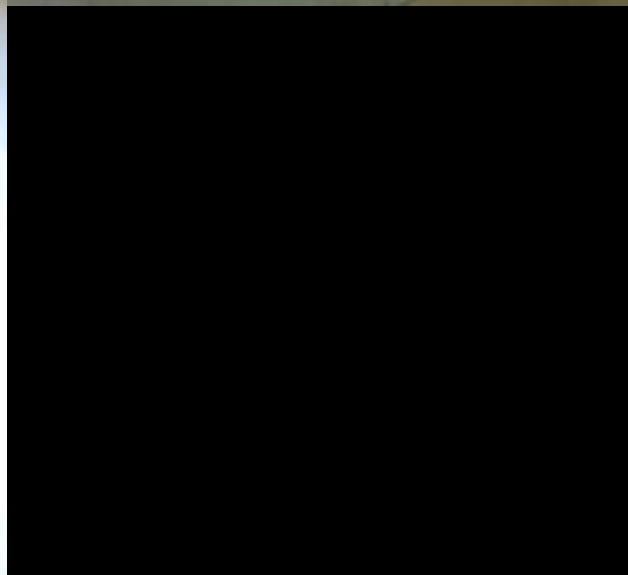
<가끔은 삶이 아프고 외롭게 할 때 - 김옥림>




Mexico
lonely planet
40 YEARS
Korea
Seoul
pull-out map
New-look guide
Comprehensive listings



WE ROLL



DON'T
TOUCH
ME
Super
183

설렁탕을 사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돈 있냐? 2

12

끝